

# ‘알몸’의 이미지와 예술성

## 대부분 페미니즘 시각서 ‘누드의 사회사’ 다뤄

얼마전 《에로스 훑쳐보기》(이섭 지음, 심지)라는 책이 외설성 시비에 오른 적이 있었다. 파블로 피카소, 구스타프 클림트, 구스타프 쿠르베, 에릭 휘슬, 단원 김홍도 등 낯익은 대가들의 작품 도판과 해설을 함께 수록한 이 책이 파문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책에 수록된 그림들이 간행물 윤리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수치심을 자극하는 나체그림’ 이었다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림에서 보이는 음모(陰毛)와 치부(恥部)가 ‘퇴폐적인 성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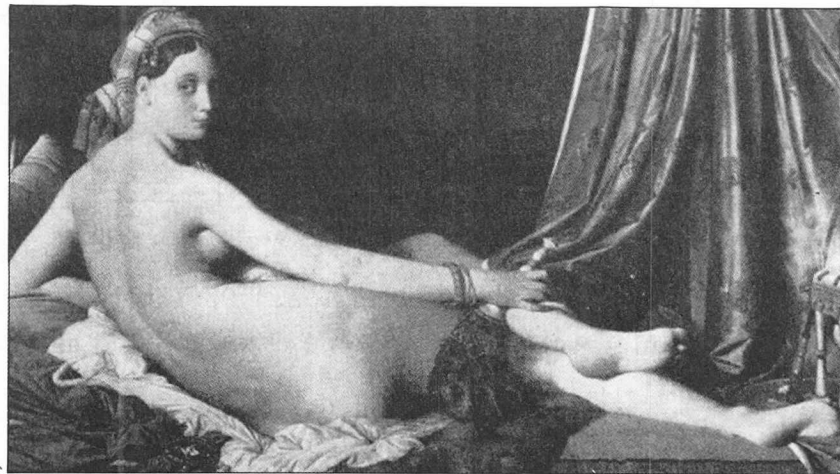
그렇다면 피카소와 쿠르베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한낱 자신과 그림을 보는 사람의 자극만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렸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들의 그림과 오직 남성의 성욕을 위해 생산된 노골적인 포르노그라피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차피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이미지는 복제, 재생산된 주관적인 시각이 아닌가?

### 미술 속의 ‘성의 이미지’

미술 속에 나타난 성의 이미지를 다룬 미술사가들과 평론가들의 책은 바로 그림에 드러난 ‘누드의 사회사’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 미술작품에 등장한 누드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연유로 ‘페미니즘 영역’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미술관 밖에서 만나는 미술이야기》(강홍구 지음, 내일을 여는 책)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미술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던 ‘누드의 변천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누드(Nude)’라는 말 자체가 점잖은 영국의 신사들이 미술작품에 등장하는 여자의 ‘벗은 몸’을 뜻하는 ‘네이크드(Naked)’라는 천박한 말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득력 있는 과거사를 밝히면서 운을 떼다. 예술작품 속의 나체는 왜 꼭 누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지 설명하면서 ‘포르노그라피’와의 차별을 시도한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표상하면서 성화(聖畵)에 등장하던 누드의 초기 시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에



장 앙그르, 「그랜드 오달리스크」, 파리, 루브르 박물관.

미술 속에 나타난 성의 이미지를 다룬 책은 그림에 드러난 ‘누드의 사회사’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누드의 소재로 객체가 돼왔던 여성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페미니즘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책은 인간의 ‘성적인 시각 전통’에 새로운 차원을 모색하고 있다.

의해 천박한 중산층의 삶과 욕망을 대변하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이르기까지 미술작품 속에 나타난 누드의 변천사를 다루고 있다.

누드의 사회사는 최근 출간된 《육체의 문화사》(스티븐 킨 지음, 의암출판)에서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책은 서양의 그림에 나타난 성을 시대별로 읽어낸다. 완전무결하고 깨끗한 육체를 묘사함으로써 ‘죄의 그릇’인 육체가 도달해야 할 이상향을 보여준 종교화(宗敎畵)의 성의 이미지가 19세기 무렵부터 음모와 늘어진 살갓, 유희적인 자세 등을 통한 육감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또 20세기초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 화가들이 인체관계의 끈끈함, 육체관계의 고뇌를 그림에 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누드의 미술사》(케네드 클라크 지음, 열화당)는 쉽게 말해 ‘누드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서’이다. 누드의 원론인 셈이다. 이 책에서 거론하는 미술작품 속의 누드는 불가시적인 진리와 이데아를 가시화하고 있는 형식이다. 즉 그림 속에 나타나는 성의 이미지들이 언급하고자 하는 ‘존재의 근원’을 탐사하고 있다.

미술이론가들이 누드·성·페미니즘을 탐구할 때 반드시 참고로 하는 두권의 책이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는 존 버거의 《시각》(Ways of Seeing)과 할 포스터의 포스트모던 문화 에세이 《반-미학》(Anti-Aesthetics)이 그것이다. 93년 번역되어 국내에 출간된 《누드와 페미니즘》(두영)은 이들 두 텍스트를 근간으로 엮은 책이다.

### 미술문화 내부의 ‘성차’ 분석

《시각》은 영국 BBC를 통해 교양 시리즈물로 방영되었던 내용을 책에 담았다. 서양 유화의 한 장르였던 누드에 개입되어 있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지적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현존의 차별성을 비판하고, 현대까지 유전되어 내려오는 ‘남성에게 불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성’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책으로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매우 강하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에 ‘성적 차이’의 문제를 개입시키고 있는 《반 미학》은 ‘표상객체로서의 여성이미지(불거리 소재로서의 여성)는 고갈될 수 없는 것’이

라는 지점에서 논의를 출발시킨다. 표상주체(여성 예술가)에 대해서는 금기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객체로 드러나는 여성의 이미지에는 금기를 가하지 않는 거부장제를 비판한다. 그림에 나타나는 단순한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차이에 부여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성의 이미지를 탐구하고 있다.

《여성, 미술, 이데올로기》(그리젤라 폴록 외 지음, 시각과 언어)는 미술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성차의 의미를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남성의 성적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과는 구분되는 누드 전통의 일반론을 설명하면서, 그 일반론이 사회화하면서 어떤 왜곡의 과정을 겪으며 소비문화에 편입되어 왔는지를 밝혀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동성의 알몸에서 드러나는 ‘성의 단순성’과 이성의 알몸에서 보이는 ‘성의 참여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사라켄트 외 지음, 삼신각)는 1980년 영국 전역에서 열렸던 한 전시회의 명칭에서 제목을 따온 책이다. 여성 작가들의 작품으로만 마련되었던 이 기획전시회는 여성작가들이 문화의 몇가지 기본틀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과감성을 보여주었다. 즉 남성작가들은 여성의 누드 그림을 만들어 보여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반대는 제대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반기를 들고 있다. 당시 전시회의 기획과정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평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이 책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작가 여성 비평가들이 ‘에로틱한 남성누드’라는 새로운 성의 이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작품 속에 나타난 성의 이미지를 논한 책들은 대부분 꽤 오랜 세월 동안 ‘누드’의 소재로 객체가 되어왔던 여성들의 입장에서 출발한 페미니즘적인 것이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예술과 외설의 접경에서 있는 듯한 포스트모던 작가들의 작품들로 인한 ‘상업주의 논쟁’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글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인간의 ‘성적인 시각 전통’에 새로운 차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연 기자